

# 올해 전북교육 결실 준비

전북교육청, 서 교육감 주재 부서별·기관별 ‘2025년 경영계획 발표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교육감 주재로 부서별·기관별 ‘2025년 경영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도약을 넘어 결실로’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경영계획 발표회는 ‘학력신장, 책임교육’을 위한 10대 핵심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본청 각 부서와 14개 지역교육청 교육장, 13개 직속기관장이 참석해 부서와 기관 사명에 따른 달성 목표·추진 전략·핵심사업을 발표했다.

‘학력신장’을 위해 학교급별로 맞춤형 지원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유아·초·중·고 교육 확대(유아) △중위권 학생 중심 학력신

장 정책 고도화(초등) △학교에 머무르는 순수공부시간 확대(중등) △성공진로·진학 지원(중등) 등 현장 맞춤형 정책을 펼친다.

‘책임교육’ 실현을 위해 △모든 부서·기관의 ESG 실천 △특수교육원 설립 △5개 지역 거점형 한국어학급 운영 △지역·대학·학부모 연계 지역교육 생태계 구축 등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조하는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14개 교육지원청은 지역별 특색과 여건에 맞는 ‘학력신장’ 정책을 비롯해 △지역별 현안 해결 △6개 지역 대입지원 거점형 진로·진학상담센터 활용 등 지역 학생들의 진로를 책임진다.

직속기관은 각 기관에 성격에 맞는 전문성을 발휘해 △2025년 교원 생애 주기 연수 실시(교육연수원) △이동과

학차량 운영(과학교육원) △AI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미래교육연구원) △솔로몬과 함께하는 모의 법정 체험(학생교육문화관) △달빛별교실(유아교육진흥원) 등을 운영한다.

이에 전북교육청은 경영계획 발표가 부서·기관별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전략을 구체화함으로써 학력신장, 책임교육 등 10대 핵심과제 성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거석 교육감은 “경영계획 발표가 도민들이 열망하는 전북교육 현안을 고민하고 전략을 모색하는 기회가 됐길 희망한다”며 “각 부처와 기관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성공적으로 실현해 전북교육이 도약을 넘어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은성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일 창조나래 시청각실에서 서거석 교육감 주재로 부서별·기관별 ‘2025년 경영계획 발표회’를 개최했다.

## “교육공무직 노동자의 평등한 돌봄권 보장을”

전국교육공무직 전북지부  
공무원·교육공무직 간  
출산·육아지원 차별 지적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 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의 육아시간 차별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무원은 육아시간을 1일 최대 2시간 사용할 수 있지만, 교육공무직원은 급여 일부를 보전하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북지부는 6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비정규직인 교육공무직원들의 육아시간 차별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공무직 노동자에게 평등한 돌봄권을 보장하라며, 공무원과 교육공무직 간의 출산·육아지원 제도에 대한 차별을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모성보호시간(임신 기간)에 대해 1일 1시간만 사용가능하다고 했다. 1일 최대 2시간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으로 이용하되, 2시간 이후부터는 급여가 삭감된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신청 절차도

까다로우 이조차도 이용하기 힘들다고 했다.

특히 육아시간 제도가 아예 없어 임신과 육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육아 휴직 또한 최초 1년까지만 연속기간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들은 “출산·육아지원제도는 공무원에 전용한다”는 조항이

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육공무직원 단체교섭이 진행중인 상황으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출산·육아·돌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성실히 교섭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장은성 기자

## 올해 부패방지제도 홍보 강화 나섰다

전북교육청, 퀴즈 이벤트·카드뉴스 제작 등 홍보 활동 추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5년 부패방지제도 홍보 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홍보 활동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홍보 계획은 공익신고제도, 청탁금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등 다양한 반부패 법령과 제도를 알리고,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실천을 유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매월 첫 번째 월요일을 ‘청렴

의 날’로 지정, 전북교육청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를 대상으로 퀴즈 이벤트를 연 4회 실시할 예정이다. 추첨을 통해 기프티콘(커피상품권)도 지급된다.

또한 접근성 향상과 부패방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부차형 신고용 QR코드를 각급 학교(기관)에 배부해 반부패 신고의 접근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업무포털 팝업존을 활용한 쇼츠(shorts) 영상 홍보 △부패방지제도 관련 카드뉴스 제작 △업무포털 메인화면 홍보 △포스터 및 리플릿 배부 등을 통해 인지도를 높여 나가기로 했다.

이훈열 감사관은 “부패방지제도 홍보 강화를 통해 공직자 인식 제고, 법령 준수 문화 정착, 신고 활성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 “교사 없는 교권보호위원회, 교사 대변 가능하나”

전교조 전북 “14개 시군 교권보호위원회 교사위원 전체의 9.8%… 대책 절실”

전북교육청 “학생 생활지도 경력 있는 교원이 대상… 교장·교감 등도 포함돼”

전교조 전북지부(지부장 오도영)는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지역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위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 대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따르면 ‘2024년 14개 시군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297명 중 교사 위원은 29명으로 전체의 9.8%였다. 교사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은 교육지원청은 군산·고창 등 2군데였다.

오도영 지부장은 “교육활동 침해 피

해자는 대부분 교사”라며 “학교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 포함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종교육청은 39% 정도인데 전북은 불과 10%도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육청의 교권감수성이 낮은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권보호위원회 제15조 1호에 의하면 학생 생활지도 경력에 있는 학교의 교원이 대상이므로 교사뿐만

아니라 교장·교감을 포함할 수 있다”며 “교장의 경우에는 교원 중 교장 2명, 군산은 교장 9명·교감 2명이 각각 포함되어 있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교(원)장 35명, 교(원)감 30명, 교사 29명으로 교원 전체는 31.7%”라고 설명했다.

/장은성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대학교가 6일 2025년 상반기 신입 교수 42명을 임명했다.



## 전북대, 상반기 신입 교수 42명 임명

양오봉 총장 “연구 경쟁력·강의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달라”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가 상반기 신입 교수 42명을 임명했다.

6일 전북대에 따르면 양 총장은 이날 신입 교수들에게 임명장을 전달하며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 맞춰 연구 경쟁력을 높이고, 강의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신입교수를 대표해 김연동 교수(의과대학)가 청렴 선서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도 가졌다.

상반기 임명된 신입 교수로는 △경상대학교 안정규(경영학과 / 재무관리) △공과대학 김누리(전자공학부 / 인공지능, 로보틱스), 박슬기(화학공학부 / 이차전지), 박철현(전자공학부 / 반도체 전 분야), 박혁우(컴퓨터인공지능학부 / 인공지능, 빅데이터), 성지훈(컴퓨터인공지능학부 / 컴퓨터학 전 분야), 서종원(소프트웨어공학부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 분야), 이승협(화학공학부 / 반도체), 정희원(소프트웨어공학부 /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 분야), 장영석(기계설계공학부 / 바이오센서), 홍영선(융합기술공학부 IT융합기전공학전공 / 메카트로닉스) △농업생명과학대학 남현화(작물생명과학과 / 약용자원식물), 이상현(지역건설공학과 / 농업수문학) △대학본부(학부) 장원준(융합학부 / 방위산업) △법학전문대학원 성재열(법학과 / 행정법) △사회과학대학 김준협(정치외교학과 / 국제정치) △산학협력단 양충모(산학협력단 / 지역경제) △수의과대학 박준홍(수의학과 / 수의생리학) △의과대학 고종현(의학과 / 정형외과 /

척추), 김이식(의학과 / 순환기내과), 김연동(의학과 / 마취과학), 류한욱(의학과 / 뇌전증, 수면의학), 박에스더(의학과 / 소아중환자의학), 박은혜(의학과 / 근골격진단방사선학), 박정수(의학과 / 뇌혈관질환), 박승용(의학과 / 호흡기내과), 안하림(의학과 / 유방갑상선외과학), 여차동(의학과 / 이비인후과학), 이영근(의학과 / 수부 및 미세수술), 이창훈(의학과 / 혈액종양내과), 정래영(의학과 / 순환기내과) 최원구(의학과 / 부인종양학), 최원일(의학과 / 생리학) △인문대학 유수린(독일학과 / 독어학), 유정열(국어국문학과 / 한문산문), 이은경(영어영문학과 / 영미시), 채현수(문헌정보학과 / 문헌정보학 일반), 허인욱(사학과 / 고려시대사) △자연과학대학 박보인(반도체과학기술학과 / 반도체), 임지훈(반도체과학기술학과 / 반도체소자/회로), 황승용(통계학과 / 통계학) 등 42명이다.

양오봉 총장은 “전북대는 미래 사회를 선도할 연구와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며 “새롭게 임명된 교수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하고, 학생들에게 탁월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임명된 교수들은 공과대학, 의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선발됐으며, 반도체, 인공지능, 생리학, 역사학, 법학 등 최신 학문 트렌드를 반영한 연구와 교육을 담당하게 된다. /장은성 기자

## 우석대, 신입교원 임명장 수여식 개최

우석대학교(총장 박노준)는 6일 대학 본관 22층 대회의실에서 신입교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신임교원 임명장 수여식에는 박노준 총장과 교무위원 등이 참석해 신임교원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이번에 신규 임용된 교원은 이주희(간호학과)·정연희(간호학과)·김지용(교양대학 진전)·김우경(생물체육학과)·유지영(생물체육학과)·한상진(스포츠마케팅학과)·이수현(약학과)·한성주(조경학과)·박은석(태권도학과)·엄유진(경찰학과)·정호기(교양대학 진전)·채현숙(생명과학과)·박신애(아동사회복지학부)·이



신경(역량개발인증센터) 교수 등 14명이다. 박노준 총장은 “신임교원들이 대학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 만큼, 각자의 분야에서 탁월한 교육과 연구로 대학 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학교 성범죄 근절

예방 프로그램 운영

전북교육청, 성교육

집중프로그램 신청접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성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성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 인권 체험부스 운영 등으로 구성된 성교육 집중프로그램을 마련, 학교의 신청을 받는다.

디지털 성폭력 예방교육은 학급당 3차시 수업을 운영하며, 성 인권 체험부스는 7개 주제를 테마로 각 주제별 성 인권 관련 내용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양성평등문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학생 참여·체험형 뮤지컬 공연도 운영된다.

초등 및 중등의 각 발달단계에 적합한 내용으로 공원을 구성해 배우와 관객이 직접 소통하며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자 했다.

성교육 집중프로그램 및 양성평등문화 체험형 프로그램(뮤지컬)은 학교를 방문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10~14일 신청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학교업무지원센터

새 학기 학교 지원 총력

전주교육지원청 학교업무지원센터(센터장 이해란)는 새 학기 학교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학교업무지원센터 역할을 대폭 강화한다.

교원들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간제 교원 채용이나 교실 재배치, 특별실 정리,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등 행정업무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설립된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지난해 6개 행정업무 지원 지원 △교직원 법정업무 연수 지원 △일반교실 및 특별실 재배치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 등 지원 업무를 22개로 대폭 늘렸다.

공립학교뿐이던 지원 대상도 공립 유치원과 사립학교까지 확대했다.

학교업무지원센터는 새 학기 준비에도 만전을 기했다. 15개 학교에서 총 24건의 기간제 교원 채용을 지원했으며, 이와 관련해 198건의 기간제 교원 호봉 지원도 했다.

더불어 학교안전지킴이 채용 등 13개 학교에서 21건의 교육·행정 인력 채용을 지원해 학교가 인력 공백 없이 개학을 준비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시설 정비도 20개 학교에서 총 80개 교실을 재배치하고, 7개 학교의 특별실 7곳을 정비했다.

이해란 센터장은 “새 학기를 맞아 학교들이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